

막판 보기 아찔사!... 우승 놓친 유해란

유해란이 미국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시즌 첫 우승이자 통산 2승을 아깝게 놓쳤다.

유해란은 22일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LPGA투어 데이나 오픈(총 상금 175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5타를 쳐 쥘리아 와이센(태국)에 1타 뒤진 2위(19언더파 265타)에 올랐다.

한때 5타 차 열세를 따라잡고 15번 홀에서 공동선두로 올라서면서 시즌 첫 우승이자 지난해 10월 윌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 이어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바라봤던 유해란은 16번 홀(파4) 보기가 빠아 왔다.

17번(파5)과 18번 홀(파5) 모두 버디를 잡아냈지만 와이센도 버디로 응수해 경기를 다시 뒤집지 못했다. 버디 7개를 잡아낸 유해란이 딱 1개 적어낸 보기가 우승 길목을 가로막은 셈이다.

지금까지 12번이나 한국인 챔피언을 배출해 '한국 선수 텃밭'으로 불렸던 데이나 오픈에서 올해 출전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은 린시위(중국)에 이어 두 번째, 상금랭킹은 가장 높은 유해란이었기에 아쉬

LPGA 데이나 오픈 한 타차 준우승... 통산 2승 무산
5타 차 열세 버디 7개로 추격... 16번 홀 통탄의 실수

움은 더 컸다.

역전 우승은 무산됐지만 유해란은 이번 시즌 최고 순위를 남겼다. 올해 여섯번 톱 10에 진입한 유해란은 JM 이글 LA 챔피언십 3위가 시즌 최고 성적이었다.

또 유해란은 에비앙 챔피언십에 이어 2주 10이자 시즌 7번째 톱10에 진입해 벨리 코르다(미국)와 함께 이번 시즌 2위가 됐다. 이번 시즌 톱10 진입이 가장 많은 선수는 9번의 후루에 아야카(일본)다.

와이센에 3타 뒤진 2위로 최종 라운드 맞대결에 나선 유해란은 전반에는 와이센의 질주에 힘을 쓰지 못했다.

와이센은 3번 홀(파4) 버디로 4타차로 달아났고 유해란이 6번 홀(파3) 버디로 만회하자 7번(파5)·8번 홀(파4) 연속 버디로 5타 차까지 타수를 벌였다.

10번 홀(파4)에서 유해란에게 기회가 왔다. 유해란이 2m 거리 버디 퍼트를 잡아넣자 와이센은 1.5m 퍼트를 놓쳤다.

3타 차로 좁힌 유해란은 와이센이 13번 홀(파4)에서 또 1타를 잃은 덕에 2타차로 따라붙었고 14번(파3)과 15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 마침내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유해란은 5개의 버디가 대부분 홀 2m 근처에 떨어지는 예리한 샷에서 나올 만큼 상승세를 탔으나 16번 홀(파4)에서 나온 통탄의 보기에 발목이 잡혔다. 가장 어려운 16번 홀에서 유해란의 드라이버 티 샷은 오른쪽으로 밀려 숲으로 날아가 세 번째 샷으로 그린을 공략해야 했다. 세 번째 샷은 홀에서 5m 거리에 떨어졌고 퍼퍼트는 홀을 외면했다.

유해란은 17번(파4)과 18번 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뽑아내며 물고 늘어졌지

만 와이센도 17·18번 홀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아 1타 차를 끝내 따라잡지 못했다. 유해란은 "이전까지 최고 순위는 3위였다. 이번에 2위를 했으니 다음번엔 우승이다. 다음 대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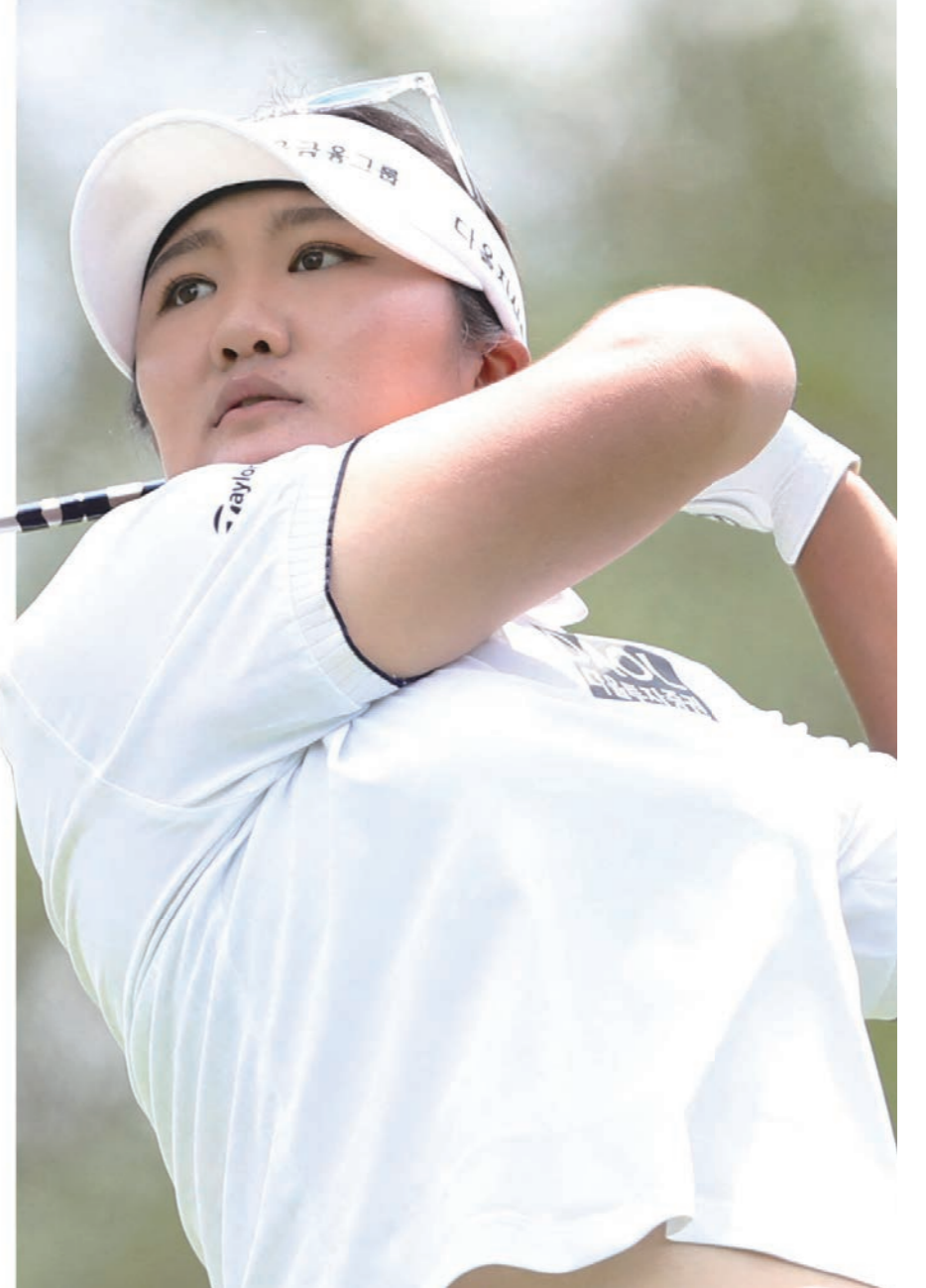
작년 9월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월요 예선을 통과해 우승까지 차지했던 와이센은 1년여 만에 통산 2승 반열에 올랐다.

와이센은 이날 버디 6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4언더파 67타를 쳤다.

우승 상금 26만2500달러를 받은 와이센은 "유해란이 너무 잘해서 힘들었다. 마지막 홀 버디 퍼트를 할 때는 손이 마구 떨렸다. 첫 우승만큼 이번 우승도 꿈만 같다. 세번째 우승을 목표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데이나 오픈 우승자 린 그랜트(스웨덴)와 정쓰자(대만)가 14언더파 270타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그랜트는 마지막 18번 홀(파5) 더블보기로 단독 3위 기회를 낳았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유해란은 2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LPGA투어 데이나 오픈(총상금 175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위(19언더파 265타)에 올랐다. AFP·연합뉴스

이승우 "저 전북 갑니다"

2년개월 몸담은 수원FC서 이적
서포터스석에서 직접 소식 알릴

부진 탈출을 노리는 프로축구 K리그 1 전북 현대가 수원FC의 골잡이 이승우(26)를 품는다. 이승우는 21일 인천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2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팀이 4-1로 승리한 뒤 서포터스석에서 직접 자신의 전북 이적 소식을 전했다.

전북 관계자는 22일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메디컬 테스트가 남아 있다"며 "조만간 영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승우는 2021년 12월 수원 FC 유니폼을 입은 이후 2년 7개월 동안 88경기에 나서 34골 8도움의 기록을 남기고 전북으로 옮겨 새롭게 선수 경력을 이어나가게 됐다.



이승우가 21일 인천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팀이 4-1로 승리한 뒤 서포터스석에서 직접 자신의 전북 이적 소식을 팬들에게 전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승우는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출신으로 2017년 엘라스 베로나(이탈리아) 유니폼을 입었고 2019년에는 벨기에 주필러리그 신트트라위던으로 이적했다. 하지만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해

2021년 2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로 임대됐지만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4경기에서 총 30분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2021-2022시즌을 앞두고 신트트라위던에 복귀했지만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

면서 결국 국내로 발걸음을 옮겼고 고향팀인 수원FC에 입단해 K리그 무대를 처음 경험했다.

이승우는 2022년 K리그1 데뷔 시즌에 14골 3도움의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고 작년 시즌에도 35경기에서 10골 3도움을 작성했다. 21일 인천전에서도 골 맛을 보며 이번 시즌 18경기 만에 10골(2도움)을 채우고 세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24라운드 현재 이승우는 일류첸코(서울·12골)와 무고산(인천·11골)에 이어 득점 랭킹 3위다. 이런 가운데 이승우는 이번 시즌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북의 러브콜을 받고 이적을 결심했다.

K리그 최다 우승(9회)에 빛나는 전북은 이번 시즌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전북은 24라운드까지 5승 8무 11패(승점 23)로 11위 대구 FC(승점 23)와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10위에 랭크됐다.

이승우는 전북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박지성(43)의 존재 때문에 이적을 선택했다는 점을 스스로 강조했다. 스키데일리·연합뉴스

쇼플리 THE OPEN 도 제패... 메이저 2승

젠더 쇼플리(미국·사진)가 제15회 브리티시 오픈(이하 디오픈)을 제패하면서 이번 시즌 두차례나 메이저 골프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골프 세계랭킹 3위 쇼플리는 22일 스코틀랜드 사우스 에어셔의 로열 트루프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골라내는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합계 9언더파 275타를 찍어낸 쇼플리는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빌리 호셀(미국·7언더파 277타)을 두 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자에게 주는 클라레 저그와 함께 상금 310만 달러(약 42억9000만 원)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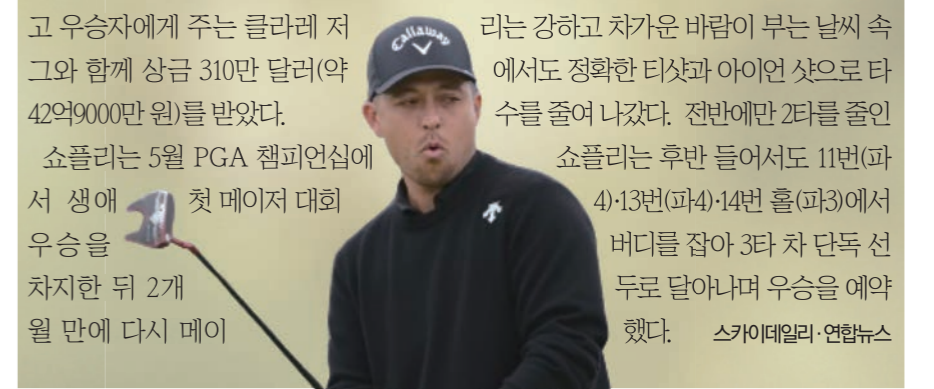
쇼플리는 5월 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2월 만에 다시 메이

저 챔피언이 됐다. 쇼플리가 디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메이저 4개 대회는 모두 미국 선수가 우승했다. 미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한 것은 1982년 이후 처음이다.

임성재는 이날 1개-버디 3개를 잡아내며 정상에 도전했지만 더블보기 1개-보기 2개에 발목이 잡혀 1타를 줄이는 데 그쳤다. 합계 1언더파 283타를 친 임성재는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공동 7위에 올랐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호셀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서 4라운드를 시작한 쇼플리는 강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씨 속에서도 정확한 티샷과 아이언 샷으로 타수를 줄여 나갔다. 전반에만 2타를 줄인

쇼플리는 후반 들어서도 11번(파4)·13번(파4)·14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아 3타 차 단독 선두로 달아나며 우승을 예약했다. 스키데일리·연합뉴스



RomaRo GRAND QUALITY

Confidence in the Short game.

Alcobaça ASA WEDGE LADY

www.romarogolf.co.kr